

남원시, 농산물브랜드 ‘춘향애인’ 뜬다

마케팅·유통·판매망 확충 등
조합공동사업법인 전담 효과
작년 매출 851억원 급증 추세

남원시가 남원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춘향애인’ (춘향애인)을 올해 전국 5대 농산물 브랜드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어 주목을 끈다.

9일 남원시에 따르면 시는 남원시조합 공동사업법인과 함께 마케팅 활성화, 산지 유통시설 확충, 농특산물 판로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소규모 생산농가와 농산물 가공업체의 소득향상을 위해서도 다양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준컬푸드직매장 참여 농가에 비닐하우스 시설비와 잔류농약 검사비를 지원하는 등 소규모 생산농가와 농산물 가공업체의 소득향상도 돕기로 했다.

수도권 직거래 장터에 참가하는 농가에는 부스비와 참가 보상비를 지원해 농가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춘향애인은 처음 만들어진 2013년에 6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데 이어 2014년 725억원, 2015년 759억원, 2016년 766억원, 2017년 830억원, 지난해 851억원 등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다.

춘향애인이 이처럼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남원농산물의 우수성과 철저한 품질관리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농민들이 어려워하는 유통과 판매를 남원시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맡아 농민들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 것과 1인 소비자 시대에 발 맞춰 농산물 소포장과 국내외 시장을 확대하는 등 한발 앞선 판매 전략을 세운것이 주효했다는게 시의 설명이다.

실제로 춘향애인은 매출이 늘어나면서

참여하려는 농가가 꾸준히 늘고 있고, 초기 딸기와 파프리카, 감자, 상추, 오이, 멜론, 포도, 배 등 8개였던 품목이 육성품목 7개 (토마토, 방울토마토, 오이, 배, 수박, 애호박, 양파)를 더해져 15개로 늘어났다.

시는 올해 900억원을 남기고 내년에는 1000억원 시대를 열 계획이다.

특히 품질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해 소비자 신뢰를 높임으로써 5대 농산물 브랜드

로 도약할 방침이다.

춘향애인은 이미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과 전국 12대 농산물 공동브랜드 등의 상을 받았다.

남원시 관계자는 “춘향애인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와 인지도를 높여 전국을 대표하는 농산물 브랜드로 키우고, 이를 통해 농가소득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ju.co.kr



완도수목원 가로수길 홍가시나무 등 식재 명품 길 탄생

완도군이 국내 최대 난대림 자생지이자 유일한 난대수목원인 완도수목원 진입로에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했다.

1.1km에 이르는 가로수길에 완도홍가시나무 123 그루와 홍가시나무 1만 6000여 그루를 심었다.<사진>

수종 선정 단계부터 지역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가로수길 조성을 목표로 추진했다.

완도호랑가시나무는 천리포수목원을 설립한 미국 출신의 민병각 박사가 1978년 완도지역 식물 탐사 중 발견한 우리나라 고유 수종이다.

호랑가시나무와 감탕나무의 자연 교잡

종으로 완도에서 처음 발견돼 완도의 지명이 붙었다.

9~10월 열매가 익기 시작해 겨울내 빨간색이어서 관광 가치가 높다.

완도수목원 진입로 가로수길 조성을 통해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경관을 선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완도군 관계자는 “가로수는 경관 개선 효과가 뛰어난 자원이므로 앞으로도 우리 지역 자생 수종을 활용한 특색 있고 쾌적한 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영암산림항공관리소 산불 비상근무체제 돌입

산림청 영암산림항공관리소는지난 9일부터 산불방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본격적인 산불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전국에 건조 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산불 발생이 급증하고 있고 앞으로도 건조한 날씨가 지속할 전망이다에서 산불 발생 조건이 예년보다 높다고 관리소는 설명했다.

영암관리소는 이를 위해 보유 헬기 KA-32T(카무프) 2대와 KUH-1FS 1대(수리온)의 정비점검을 마치고 헬기 가동률 100%를 확보했다.<사진>

헬기 산불 진화 중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어 특별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민병준 영암산림항공관리소장은 “최근 2~3년간 겨울철에도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작은 불씨도 대형산불로 확산할 수 있는 만큼 산림 주변에서 화기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

진도군,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학교 인센티브 지원

진도군이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와 학교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9일 진도군에 따르면 내국인 20명, 외국인 10명, 수학여행단 50명 이상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와 학교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나 학교는 관광객 유치 후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숙박시설, 음식점, 관광지 확인을 통해

지급한다.

인센티브는 당일 유료관광지 1곳, 음식점에 한끼 식사 시 내국인은 5000원, 외국인은 7000원, 수학여행단은 3000원을 준다.

2박 이상 시 내국인 2만원, 외국인 2만 5000원, 수학여행단 1만5000원으로 한 차례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군산시, 농업기술 39개 시범사업 15억 투입

소득작목·식품가공·경영교육 등 농업경쟁력 강화

군산시가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기술 6개 분야 39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농산업의 새로운 가치 창조와 지속성장을 견인하고 신기술을 통해 미래 성장의 산업을 육성하고자 추진돼 총 15억 2600만원이 투입된다.

주요 시범사업으로는 ▲지도운영분야(1개) ▲지역활력분야(7개) ▲경영교육분야(3개) ▲식품가공분야(2개) ▲작물환경분야(9개) ▲소득작목분야(17개) 등으로 이뤄진다.

또 토양분석을 통한 친환경농업 실현을 위한 과학영농실(토양시비처방서 발급, 유용미생물 EM 보급 확대, 쌀 품질 검사, 유해물질 분석 등) 운영과 농산물 가공·상품화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 기술센터에 따르면 농식품 창업육성을 위한 소규모 농식품 가공업체를 육성하는 등 농업경쟁력 강화 및 6차 산업 육성에

행정력을 집중해 군산농업 발전과 농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올해 신기술 시범사업의 경우, 한국형 도시텃밭 조성사업을 포함한 도시농업 육성 관련사업과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을 포함한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등이 포함된 것이 지난해와 다른 점이다.

김병래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새로운 영농기술을 신속히 보급하고 미래농업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해 군산지역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면서 “2019년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에 대해 농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광주일보 뉴스
facebook
페이스북에서 보세요

전북도교육청 4차산업 인재육성 나선다

올해 ‘미래창작 공방’ 8곳 설치…교사 맞춤형 연수도

전라북도교육청이 ‘미래창작 공방’ 조성을 통해 4차산업 인재육성에 적극 나선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총 8곳에 ‘미래창작 공방’을 추가로 설치한다고 9일 밝혔다.

신설되는 곳은 군산 중앙초와 봉동초, 임실 동중, 진안 마이종합학습장, 정읍·무주·장수·고창교육지원청 등이다.

전북교육청은 신설되는 미래창작공방에 3D프린터, UV프린터, CNC조각기, 레이저커팅기, 교육용 로봇 등을 구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미래창작 공방은 실험과 제작, 창작 등을 할 수 있는 창의융합교육 공간이다. 체험중심 교육을 실시,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전북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다.

현재 전북과학교육원, 전주진북초, 전주인봉초, 이리중앙초, 남원도통초, 김제·순창교육지원청, 부안동초등학교 등 8곳에

미래창작공방이 구축된 상태다.

올해 8곳이 새롭게 들어서면 도내 16개 발명교육센터 내에 미래창작공방이 모두 들어서게 된다.

교사 맞춤형 연수도 강화한다.

기자재 활용법과 지도법 중심으로 미래창작공방 담당교사 자율연수를 운영하고, 첨단기자재를 활용한 메이커교육 지도법 등 맞춤형 직무연수도 운영한다.

도내 초·중·고 교원 및 관련 전문가 등 10팀으로 구성된 미래창작공방 연구지원단도 운영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초지능화 사회에 대비해 협력·공유 기반의 창의 융합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미래공방교육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창작경험을 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도로접합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지분, 500평씩 매매
- 대학교수, 건설회사,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됨(산64-21번지)
- 매매 - 8500만원(일시불 조정가)

문의. 010-6834-7400

